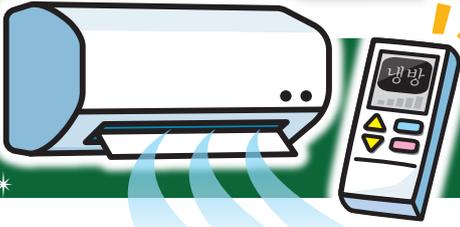


# 고령자를 위한 열사병 대책

열사병 예방에는 수분 보충과 더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방 안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어컨을 잘 사용합시다

**열사병은 실내나 야간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절전** 도 하면서 적절하게 에어컨을 사용합시다.

또한 에어컨 사용 중에도 자주 **환기**합시다.

**절전** 필터를 자주 청소한다  
2주일에 1번을 기준으로 합시다

**절전** 적절한 실온 설정

**절전** 발과 커튼을 활용하여 직사광선을 차단한다

**환기** 환기하여 바깥의 시원한 공기를 들인다

**환기** 창문과 문 등 두 군데를 연다

**절전** 온도·더위체감지수를 확인한다

더우니까 에어컨 켜요!

**절전** 선풍기나 환풍기를 함께 사용한다  
장시간,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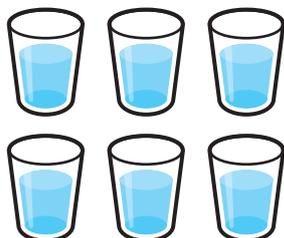
**절전** 가벼운 옷차림을 한다

**절전** 여러 대를 사용하지 않고 한 방에 모이는 등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

### 더욱 조심해야 하는 포인트

목이 마르지 않아도 **자주 수분·염분을 보충**합시다

하루  
**1.2L(꺠)**를  
기준으로



컵 약 6잔

- 1시간마다 컵 1잔
- 샤워 전후 및 기상 후에도 일단 수분·염분 보충을



※수분과 염분의 섭취량은 주치의의 지시에 따릅니다.

# ! 고령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1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고령자는 젊은이보다 체내의 수분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몸속 노폐물을 배출할 때 많은 소변이 필요합니다.

## 2 더위에 대한 감각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위나 목마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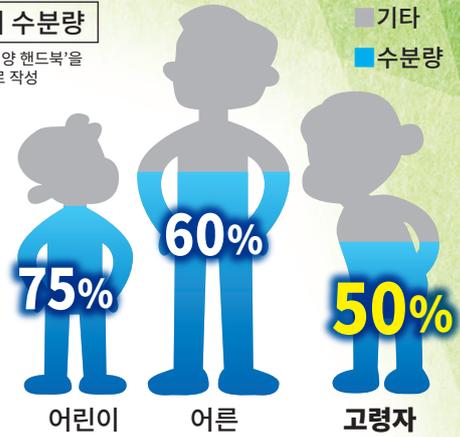
## 3 더위에 대한 몸의 조절 기능이 저하됩니다

고령자는 몸에 열이 쌓이기 쉬워, 더울 때는 젊은이보다 순환기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심장이나 신장의 상태가 나쁜 분이나 질병이 있는 분은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체내 수분량

'수액·영양 핸드북'을 바탕으로 작성



## ● 도쿄도 23구의 열사병 사망자 상황 (2021년 여름)

※총 39명(속보값)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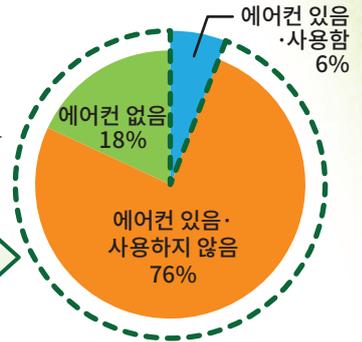
약 80%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실내 사망자 가운데 약 90%는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 에어컨 설치 유무·사용 상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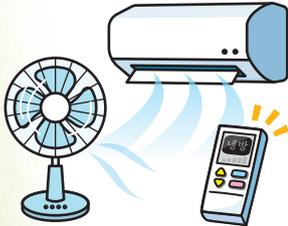
출처: 도쿄도 감찰의무원

- 에어컨 있음+사용함
- 에어컨 있음+사용하지 않음
- 에어컨 없음



## ☑ 예방을 잘하고 있는지 체크합시다

에어컨·선풍기를 잘 사용하고 있다



방 온도를 측정하고 있다



방의 통풍을 잘하고 있다



수분·염분을 자주 보충하고 있다



샤워나 수건으로 몸을 식힌다



더울 때는無理하지 않는다



시원한 복장을 하고, 외출 시에는 양산, 모자



시원한 장소·시설을 이용한다



긴급하거나·곤경에 처했을 때의 연락처가 있다



열사병 예방 정보 사이트

환경성 열사병 예방 정보 사이트의 정보를 체크! ▶▶ <https://www.wbgt.env.go.jp/>

환경성에서는 더위체감지수(WBGT)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열사병 경계경보 및 더위체감지수의 이메일 서비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사병 경계경보’는 환경성의 LINE 공식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친구 추가바로가기